**히브리서 33강**

**<기도>**

\*\*\*\* 하루 더 하나님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한발 한발 하나님나라로 향하면서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진짜 하나님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 나라가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본의 세상에서

하나님나라를 바라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히브리서10:1-10:7>**

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율법과 모형으로서의 율법과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묵시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해마다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 갈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은 자가 맞네! 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죽은 자가 맞네! 라는 걸 알고 오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산자예요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성화론 이죠. 그래서 그 성화에 목매다는 사람들은 늘 두렵고 하나님나라가 오는 것을 공포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나라를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자기의 모습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쾌해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것 역사 속의 것을 안 받으세요.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제정하시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율법에 의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 구약에서도 율법..옛 언약을 설명하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시죠. 내가 무슨 기름타는 냄새가 구수해서 그랬나요. 너희들에게 제사 지내라 그런 줄 아냐! 살진 희생해 가는 소에 질렸고 내가 짐승의 고기에 질렸다 그런다 말이죠. 그런 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다 무엇을 다 모형하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예비한 거 예비하다..그것을 여호와이레라 그러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이레가 한번 나오는데 여호와이레가 뭐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받치면서 거기에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교회니까 아브라함..교회가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을 우선 모형으로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받치려고 하는 이 인간의 행위를 끝까지 안 받는 다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또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멈추게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하나 준비 해놓고 저거다..라고 이야기 하죠 그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희생당한 어린양으로 나오는 거고..피가 받어....그리고 그 피는 또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모형하는..보여주는..그 예수의 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자기 아들의 피를 받고 다른 이들의 피를 아버지는 안보는..더러운 그 피를 왜 보냐고요 아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자. 첫째가 와서 장자가 모형으로 장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원래 장자가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하는 자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이 사람이 부정돼요. 삭제되고 항상 차자가 그 뒤를 들어가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보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그러죠! 성경이.. 장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차자. 그러니까 장자가 모형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차자가 그 장자의 것을 그냥 입어 그냥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다 받을만한 자격을 다 갖추죠! 성경에 보면..근데 아버지는..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안 받고 이 자격 없는 차자 .이 차자 비리비리한 차자에 그 염소의 털을 덮어서 그 염소털이 뭐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짐승의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비리비리한 야곱이라는 이름도 야곱..강도잖아요 도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 70인 역에 보면..야곱이라는 그런 놈에게 가죽 옷을 아버지가 만들어 입혀서 이게 장자다. 아버지 저 에서에요 그러고 들어가죠! 야곱이..

아버지 나 예수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장자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또 장자라 그래요 근데 어떤 장자냐고요 그게..아버지 나 에서에요..하고 예수의 피, 에서의 염소 털가죽 옷 그거 입고 아버지한테 예수의 옷을 내미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간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별미는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상징하는 엄마가 만들어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사히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민망하지만 내가 아버지 이거 기쁜 거라는 알고 가져 왔는데..사실 내가 만든 거 아닌데요. 근데 이걸 저한테 갖다 주라고 주네요! 아버지 기쁘세요? 하고 갖고 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역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에서처럼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이 광야인생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걸었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역사를 모형 한 거라 그래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풀도 없어서 목축도 못한다니까요 거기서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 떡 만나만 먹어야 돼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부 서원을 하고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고 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땅 끝이 어디냐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걷다 걷다보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땅 끝이라고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자꾸 어디 아프리카에 가고..슈바이처가 되겠다고 그러고 이따위 소리나 하구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보고 질그릇이라 그러죠. 질그릇은 뭐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만든 그냥 허드레 것 담는 그릇이에요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 질그릇은..히브리 사람들이 1차 수신자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흙..Dust 로 만들어진 그냥 무얼 담는 거예요 화채그릇 그러면 화채가 중심이지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밥그릇 그러면 밥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밥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자꾸 우리보고 토기라 그러고 질그릇이라 하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이 그릇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자꾸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다가 두려고 그래요 상감청자 이런 거 꿀 담는 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만지지도 못하게 전자장치를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가까이 가면 도둑놈 취급하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그거에요 우리는 이렇게 감상하고 멋진 것이 되어서 누가 이렇게 야..참 멋있다 괜찮다 감성 할 수 있는 도자기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건 골동품이잖아요

원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깨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질그릇으로 폭로되면서 내 안에 예수가 담기지 않으면 그냥 더스트구나 질그릇이구나를 보이고 가는 거지 내가 도자기가 되어서 자꾸 진열대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성화는 보면 전부 자기가 도자기가 되어서 진열대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남을 정죄하고 항상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살아..라고 지적하는데 쓴다 말이에요 성화를 해놓고. 성화도 아니지만..그런 거는..그래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시골에 가면 바가지 있죠. 표주박..그 바가지는 깨지면 이렇게 실로 꿰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꿰매도 물이 안세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물을 떠먹어요! 근데 이천에 도자기 공방 같은데 가보세요 도자기를 천 개 만들면 반 이상을 이렇게 보다가 흠이라도 요만큼 있으면 망치로 다 깨버립니다. 관상용으로 만들어지는 건 흠이 있으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고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흠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꿰매면 좀 어떻고 흠 좀 있으면 어때 깨지면 좀 어때 도 좀 꿰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지는 예수 그 내안에 담겨진 예수가 나라는 그릇을 통해 예수가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지가 지힘으로 지도움으로 지 시간을 들여서 땅 끝까지 뛰는 건 이건 마귀새끼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니들 힘으로 좀 해봐 선악과..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멋있니 ! 인간의 자존심 한번 좀 지켜라 세워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질그릇이라는 거 바가지라는 거를 모르고 예수를 닮는 그릇 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진열대 위에 도자기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건 흠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보고 토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얼 담든 그건 토기장이가 할 거니까 요강으로 쓰던 꿀단지로 쓰던 보석함으로 쓰던 그거는 토기장이에게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면서 개망신당하다 와..그래도 그러고 저런 이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그 역할을 맡아라...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야되는 거예요 요강으로 쓰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참 저렇게 삶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그걸 교훈하기 위해 너는 그러면 그렇게 살다 와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은 그 예수라는 진짜 내용물. 진짜 주체에 의해 나오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체로 정죄가 되거나 상을 받는 근거가 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릇 된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늘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 자 아니다..그래요 하나님이..그 두려움이 뭐 갰냐고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고 스스로 자기를 뭐 야..이거이래서 어떻게 .아니 야곱이 뻔뻔함을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냥 실력도 없었고 요리 실력도 없었고 장자의 그 풍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들어가서 내가 에서에요 내가 장자에요 내가 예수에요 라고 얘기한..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음성은 에서인데..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그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 넣겠어요. 여러분 음성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거 내 아들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목소리는 야곱인데..그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 강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요

그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 내가 너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보기에도. 참 잘 살잖아요! 그러면 왕이 은혜로 베푸는 그 잔치에 절대 안가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유 주시죠.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와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잔치자리인데 왜냐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지금 의로운데 뭐 하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잔치 자리에 가겠느냐고요 그 때 왕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저는 자, 병신,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함께 이렇게 친구를 삼아 왜 그들과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나라는 걸 규정 할 땐 항상 내 밖에 있는 대상의 평가나 반응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에 의해 나를 규정한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인간들은 나라는 것을 규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하다못해 태어나자마자 난 엄마의 아들이라는 나가 이제 점점점점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생의 형, 학교의 학생, 선생님의 제자, 직장의 상사 이렇게..그런데 그 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 외부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엉터리 나를 끊임없이 붙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나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여야 되는데..세리와 창기 보세요. 밖에서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들이 자랑 할 만한 나..가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끊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거 세리 창기 내가 너를 간음한 여자라고 기소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기소하니 ? 네 주위에 봐라 누가 남아 있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너를 기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간음한 여자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주는 예수 그분을 찬송하고 그 분을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건너 뛰어버리고 어줍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적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겁니다..를 해놔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 연극이나 쇼 이런 거에 본인들이 기특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뭐 뉴스를 보던 내 이웃을 보던 나만큼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심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 있는 교회지 뭐.. 이 정도면 부유한 교회지 이게 라오디게아교회 사대교회였잖아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너희들이 진짜 가난한 거야. 너희들이 살았다고? 너희들이 죽은 거야 !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 그랬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받으러 가야돼 나도 지금 바빠! 훌륭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런 잔치에 가서 히히덕거릴 시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날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 채는 사람이 없어요!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창세 전 언약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내 백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피 뿌리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점이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를 깨버리고 싶다고요 나를 아주 혼자 자기가 벌을 준다니까요 자기에게.. 그걸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걸 공포라고 한다고.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한 몸으로 오신 그 피를 갖고 오신 그 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었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점과 흠을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들 연극들 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더라도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공지영의 도가니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들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인데 그 아이들을 그 지역 진짜 유지인 인화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무슨 성폭행을 해가지고 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지역 검사 판사 변호사들을 전부 돈으로 매수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다..그리고 선생들 뭐. 혹시 그걸 어떻게 선생들이 잘못한 거다 교장이 잘못한 거다 이런 말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그 교장과 행정실장을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이나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다 애들을 그렇게 다 묶어 가지고 그랬다고..공지영 이제 인터뷰...소설 쓰기 전에 인터뷰 다니잖아요! 다니다보니까 교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면서..그 때는 아예 뉴스도 안 했어요. 그거는..2005년에 일어난 일인데..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막아 버렸거든요 돈으로..근데 영화가 하나 탁 나오니까 인터넷이니 뭐니 전부 그이야기야 도가니!! ..토요일마다 도가니탕을 먹는 사람으로서 ㅎㅎ 그 도가니는 소 무릎도가니에요 그 도가니하고는 다른 도가니에요 도가니는 용광로처럼 쇠가 막 녹는 그걸 도가니라 그러지..

지옥의 도가니에요 여기가. 사실은..그런데 공지영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 근데 그걸 돈으로 다 막고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밀려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광란의 도가니 도가니라고 이름을 진거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그 학교에 인가를 취소하라 취소 됐어요! 어저께.. 취소하고 다시 조사해서 다 구속하라 그래서 선생 9명이 또 다 잘렸데요 그러니까 이 정의의 사자들이 수십만 명이 댓글을 달면서 그냥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학교 하나를.. 그래놓고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제 막 또 달기 시작한 거죠. 벌 받을 놈들이 벌 받았다 이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진짜 악마는 어디 있을까요? 그 어린 애들 중학생애들을 교장실로 끌어다가 배고파 갖고 먹을게 없어가지고 맨 날 굶고 있는 아이들 사탕주고 과자주고 성폭행한 그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1번, 돈 받고 이의 있는 놈들을 반드시 기소를 해서 벌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그 죄를 무마시켜버린 검사,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소견서를 돈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돈을 받고 소견서를 엉뚱하게 쓴 산부인과 의사, 그런 일이 일어 난 걸 알면서도 행정실장과 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애를 두들겨 패서 가짜 진술서를 쓰게 한 교무과장,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빨리 벌주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네티즌,

어디에 악마가 진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앞에 이건 그냥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 앞에선 이런 거..이 정도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사회법과 도덕과 윤리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열두 명씩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근데 이 원수들이 이게 이 지옥의 도가니의 세상의 실체인지 알지 못하고 이 놈들을 빨리 벌주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이 세상은 얼마든지 인간들이 원인을 제거해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무기..이게 마귀에요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제까지는 그 사람들의 편이었잖아요 그런 마귀 같은 새끼들은 빨리 감옥에 쳐 넣어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모든 인간들을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서 예수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의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나라 이런 것들을 꿈꾸게 만들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뭐이..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온다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니 요한 1서 4장에 그 사랑 이이야기는 분명히 전제..단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그러면 너희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 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매요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을 전제로 달아 놓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라는건 사랑 할 수 없는 자들이 붙들 수 있는 게 뭐에요 예수 밖에 없잖아요

서로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가 들어 갈 때 그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랑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를 사랑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 자. 그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사랑 해볼 거야..물어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예수를 사랑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책에 나오잖아요. 법..율법 지켜라 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건..전체적인 맥락이나 문맥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 뚝 뛰어서 사랑해라 그러면 그건..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요 결국은..그 사랑해서 내가 나 사랑했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쁘니까 하는 거지 그도 저도 전혀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나에게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 그런 거 못해요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그냥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거 같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죠 결혼하면 어때요 그 별로 패고 싶잖아요. 따다가 아주 그냥 묻어버리고 싶잖아요! 그 별에다가..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이 사람이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쾌락에 필요할 때..필요할 것 같다는 그 때에는 사랑한다고 연극해요 근데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게 증오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따뜻하게 말이야 따뜻해지세요! 좀 제발..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사람들도 좀 맞아주고 ..

지난주에 산호세에서 오신 권사님이 밥 먹다가 혼자 왔는데 하도 그냥 아무도 말을 안 걸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밥 같이 먹다가 들어 왔거든요 그 분하고 계속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가시면서 전화 와가지고 어쩌면 한 시간을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말을 안 걸더라고..따뜻하게 좀 하세요 옆 사람한테..그러나 그렇게 한 거 갖고 날 자랑하거나 그러진 말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거..예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꼭 어디 가서 핑계 대면..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자기의 쌓는 거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게 무슨 자기 의 쌓는 거예요 그게..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덮석 덮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러분..애기 때 한두 살 먹은 애가 기저귀에다 똥 쌌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애를 두들겨 패는 거 보셨어요? 그거 갈아주면서도 예쁘잖아요! 매번 색깔까지 확인하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내 새끼니까 아니 근데 애가 엄마가 기저귀 가는 데 괜히 막 계면적어 하면서 미안해요 내가 아직 어려서..이렇게 오줌도 싸고 그러네요. 어머니 조그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금방 성숙해서 .아니 그럼 그 애기를 .그게 척키지 그게 무슨 애냐고..공포의 인형..그러면 애 키울 맛이 나겠느냐고요 여러분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요 품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지일을 지가 이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때까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붓던 엄마들이 패닉상태에 빠진다니까요 그럼 난 이제 뭐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애기거든요 Infant 라고요 그 게요. 애기는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애기 데리고 가다가 불량배가 나타나서 때릴라 그러고 돈 뺏을라. 그럴 때 아가야 아빠만 믿어 그러면 아빠가 나가 싸우겠단 얘기지 싸우다가 그 애기한테 야..인마 너도 좀 도와줘야지 지금 사태가 이런데..이런다면 믿음이 뭐냐고요 아빠만 믿어..에서 그, 믿음이.. 어린 아기한테 아빠가 요구할 게 뭐있냐고요 자꾸 우리는 이 애기가 성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없음이 있음을 흉내 내는 거라고요. 그 애기가 뭘 가서 뭘 어떻게 돕겠느냐고요 발가락을 물어뜯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빨도 안 난 애기가.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항성씨 12월 달에 온다고 그러는데...저한테 오겠대요. 또..어저께 전화를 하는데 걔가..너 안에 들어있는..니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가 너무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라고 얘기해..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나라는 존재의 일상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벌써 15년 이상 얼굴 한번 안 봤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오기 전에 떠나오기 전에 같이 술 먹어도 혼자 항상 뭔가 고민했다고.. 뭘 항상 고민해..술값이 없어서 이걸 어떠하나 저녁에 오면 내줄려나 이러고 있었던 거지 뭐 그 고민이 오늘 날에 김 목사를 만들었다나! 맨 날 같이 그랬지 그리고 나선 일절 딱 연락 끊고 아무런..

근데 도대체 뭐가 내가 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를 해갖고 공연도 다 취소하고 12월에 나 갈 거야 여러분 진짜 자기가 믿은 예수가 내가 사랑스럽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했을까..라고 사랑스러우면 그 예수를 품고 있는 상대방이 궁금해지고 사랑스럽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 내 주위에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구역예배 가 보세요! 서로 다 딴 얘기하죠! 지금요.. 괜히 저를 위로하려고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어요..하지만 다 알아요 안테나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들으면 전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열 명이면 열 명이 딴 얘기하네! 그러니 여러분 거기 가서도 외롭잖아요! 아니에요? 외롭게 하는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그런데 어디 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외로워..제일 친한 분이 윤복희 권사님이래. 온누리교회서.. 근데 이 양반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맨 날 하나님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얘기하다보면 딴 나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복희한테는...아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안 봤으니까(?).여기는 많다니까 500명이 넘는다니까 야..이거..심봤다 와가지고 어 이거 다 도라지네 그러고 갈 거야 아마..캐보니까 도라지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뭐 갰냐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사랑이 없다느니 막 산다느니..도대체 우리교회 누가 어떻게 막사냐고..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띠 띠우고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렇게 힘들어서 가끔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하나님 이대로도 괜찮은 겁니까? 고민하는걸.. 그걸 보고..저거 보라고.. 근데 꼭 그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들 고주망태들이에요 보면..지들이 술 제일 잘 먹는 인간들이 어이 누가 어디서 막걸리 먹는 거 봤고..아니 그러니까 들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걸. 들 키냐고.. 고민하려면 혼자 하래니까 그런 거..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많이 아파하세요! 그러다 가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스윗치 탁 넣어 줬을 때 잠깐 씩 맛보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담는 바가지예요 질그릇이라고요 도자기 되려고 하지마세요 진열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깨진 바가지로 쓰신다면 그렇게 쓰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히 쓸 그릇도 만들었다 그러면 금방 인본주의자들 그러죠! 아니 누구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누구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고..이게 뭐냐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릇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깨진 그릇도 있다. 그게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 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담는 그 보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내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놓아 질수 있다고요 뭐 한 20면도 안 되는 이런 교회 하면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알면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담겨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못 먹어봐야 얼마나 못 먹고 잘 먹어봐야 뭐 얼마나 잘 먹어요 그리고 좋은데서 자봐야 얼마나 좋은데서 잘 것이며...

하여간 우리 애들 보면 가끔 텐트를 치고 뒷마당에서 자요 따듯한 방 있는데 왜 거기서 자냐! ..재미있으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근데 그렇게 재미로 잘 수 있는 데를 이제 내가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나 영광 이런 거 입증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부끄러워진다니까요 자꾸.. 재미있었잖아요 그게..근데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면 자꾸 내가 부끄러워진다고요 아는 왜 깨졌어! 나는 왜 꿰맸어! 이렇게..나는 왜 낡은 바가지야..이렇게 된다고..근데 거기에 맑은 생수가 담기게 되면 이게 생수 바가지라고요 그걸로 보물을 푸면 보물 바가지라고..

근데 자꾸 이 바가지를 어떻게 하면 보석으로 만들까..에 관심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걸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이 뭐냐고요 암석이..흙이 강력한 충격이나 확 불에 의해서 홀랑 탄 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흙이..죽은 흙인 성도가 하나님의 고난을 시간을 통과 할 때 보석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성화해서 보석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보석은 천국의 도로포장 재료밖에 안 돼요 거기는 길이 다 금이라 며요 근데 왜 그런 도로포장 재료 같은걸 될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으세요! 그 예수를 믿으라니까요 예수를 붙드시라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면서요? 예수 밖에는 생명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생명 ..그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영생을 살기 위해선 그 예수 어떡해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나를 부정하는 모든 게 다 꿰매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일어나면 어려분의 인생은 부끄러워..하지마세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땐 교회에 이야기 하세요 저에게 이야기하시던가 하셔서 ..진짜 다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까지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한번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여 차마 입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대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 해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으로 행복해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